

완도군, 드론 배달점 설치 완료...물류 사각지대 해소 기대



완도군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밀착형 드론 배달점 설치 사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드론 배달점 선정·구조물 설치 등

횡간도 등 8개 권역 34개소 배달 거점·중계점 등 드론 배달점 선정 이달 중 시험 비행 후 2021년 시범 운영·2022년 장비 도입·본격 운영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배달 운영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4월 2020년 공모사업(전액 국비)에 전국에서 전남 완도군과 경남 통영시가 선정되는

패거를 이뤘다.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설치 사업'이란 도서 지역에 차·도선으로 물품 이동이 어려워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드론 배달점의 도로명주소를 입력

하면 드론이 비행하여 위치를 찾고 원하는 지점에 물품을 배달하게 된다. 지리적 위치 및 비행 환경을 고려하여 군외면 불목리에서 고마도, 사후도, 토도, 그리고 노화읍 고마리에서 마삭도, 횡간도 등 총 8개 권역에 34개소의 배달 거점, 중계점을 포함한 드론

배달점을 선정하였으며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다. 11월 중 이번엔 설치된 드론 배달점에서 드론 기체의 비행 안정성을 시험할 예정이며, 2021년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에는 장비 도입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 지역에 생필품·구급약품·우편 등을 신속하게 배달해 물류 사각지대에 있는 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강진군, 해외 이주 여성 홍역 항체가 조사 해외 이주 여성 200여 명 대상...유행 선제적 차단 목적

강진군은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해외 이주 여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홍역 항체가 검사할 실시한다. 군은 2015년 2명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홍역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국내 홍역 환자 발생이 2019년 7명, 2018년 15명, 2019년 199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항체 보유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 홍역 예방·관리를 통해 홍역 유행을 선

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홍역 항체가 조사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하고 강진군의 적극 참여와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채혈을 통해 1차 홍역 면역글로불린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며 항체 미보유자를 선별해 홍역 예방접종 유도 후 2차 항체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 마량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사업 착공 사업설명·의견수렴 위한 입주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강진군은 지난 2일 마량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마량농공단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사업에 착공했다. 군은 사업설명회에서 사업내용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뢰받는 소통행정으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1988년 농공단지로 지정돼 14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마량농공단지는 오수관로가 조성돼 있지 않아 그동안

기업들은 개별 정화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마량농공단지의 기업환경개선과 인근 해역의 수질 보전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내 오수관로 1km, 배수설비 850m, 맨홀캡프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은 "마량농공단지는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 정비가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지난해 2억 원을 투입해 실시한 해수배출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해 집수정 등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오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입주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고객만족 소비자 초청 팜파티' 호응 유자마을 농장서 60여명 감사 행사 개최...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높여



진도군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소비자 초청 팜파티'를 개최해 호응을 얻고 있다. 팜파티는 농장을 뜻하는 팜(farm)

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가가 소비자를 초대해 농산물 홍보·판매와 체험 등을 제공하는 행사다. 최근 지산면 삼당리에 위치한 진도 유자마을 농장에서 60여명의 고객을 초청, 진도의 농산물을 꾸준히 찾아주는 소비자에 대한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 '진도 유자마을' 농장은 직접 만든 액비로 해풍을 맞고 자란 유자와 비타민의 보고라 불리는 황금봉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에 유자 생산 시기에 맞추어 팜파티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객들과 경기도 두레 생협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

번 팜파티에서 유자농장 돌래길 걷기로 코로나19로 지친 소비자들에게 자연 환경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유자청 담그기와 도자기 만들기 체험으로 즐길 거리와 함께 전통 국악과 성악가 초청 공연 등을 함께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고객은 "택배로만 받아보던 진도 농산물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직접 보니 더욱 믿음이 가고, 꾸준히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팜파티 행사의 보고라 불리는 황금봉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에 유자 생산 시기에 맞추어 팜파티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객들과 경기도 두레 생협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

장흥군, 전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 추진

장흥군은 5일부터 대덕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에 따라 평생교육 강좌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key잡·클러치 가방 만들기 등 가족공예 프로그램이 12월 8일까지 대덕읍 다목적 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전남도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대덕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8년에는 관산읍, 2019년에는 장평면 주민들을 대

상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매년 한 읍면씩 선정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상 쉽게 접할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여가선용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의 발판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평생학습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바다의 첫 선물, 해남 곱창김 아시나요" 해항 여건 따라 생산량 변화 심하고 짧은 기간 소량 생산

해남군 청정바다에서 2021년산 햇김 생산이 시작됐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물김은 조생종 잇바디돌김으로 열체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 일명 곱창김으로 불린다. 곱창김은 해항의 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심하고, 남해안 일대에서 10월말부터 한달정도 짧은 기간 소량만 생산된다. 일반김에 비해 빛깔과 식감이 좋고, 품미가 뛰어나 조미없이 살짝만 구워도 바삭한 김 본연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 원초가 거친 일반돌김에 비해서도 부드럽고 담백해 돌김 특유의 고소함이 살아있다.

일반김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단기간에만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햇김을 기다려온 소비자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해남 곱창돌김은 가공기간 등을 거쳐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와 해남군수협 등에서 11월 초부터 구입할 수 있다. 한편 2021년산 해남 물김은 지난 16일 만호해역에서 첫 수확돼 화산면 구성위관장에서 26.6톤, 3,2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10월 26일부터는 송지면 어란, 학기위관장에서도 위판을 시작하면서 땅끝바다 해남 물김 생산이 본격화 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